



천국에서의 여덟 시간

리카르도 시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전하는 말을 땅에 있는 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내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 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계시록 5: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제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꿈으로 저와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억하기로, 꿈에서 저는 집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웃에 있는 도로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의 팔을 잡고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으며, 저는 구름 위를 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광채가 제 앞으로 오더니, 그 광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카르도, 리카르도, 너의 직장을 그만 두어라. 너의 일생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의 몸은 격심하게 떨렸으며,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성은 매우 강렬하였으며,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면, 같은 꿈을 꾸게 되고 주님은 같은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 후에, 하나님의 음성의 크기는 매 번마다 점점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내가 깰 때마다 떨고 있었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저의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네게 말씀하셨다면, 무슨 뜻인지도 알게 하실 거야.”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준비하고 일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주님이신지 알 수 있도록 표적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저는 씻고 나서 준비하고 일터로 갔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칠레 국립 과학 연구소” 였습니다.

저는 저의 직장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직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막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여기는 더 이상 오시면 안됩니다.” 몇 번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거둢 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 후에, 저는 담당 상사에게 가서 직장을 사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만 두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복종하여야 합니다. 저의 상사는 저를 엄려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는가?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겠나?”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위하여 이 천명이 함께 한 큰 환송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모든 사물함을 정리하여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내가 울면서 집에 돌아오자 저의 어머니는 이미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꿈에서 하신 말씀을 확증하여 주신 것과, 직장을 그만 두고 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분이 기뻐하시는데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머니와 저는 집 안에서 밤이 될 때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니께 자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자는 동안 꿈에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꿈에서 말씀하실 것으로 알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저의 방으로 가서 옷을 벗는데, 온 방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칠레 산티아고에 지진이 왔다” 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제 방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를 문 앞에서 가로 막았습니다. 저의 방 건너편에서 자고 있는 가족이 보며, 도와 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를 막았던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주님이 천사였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하여 달라고 간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성령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카르도, 이제 네가 너의 직장을 그만 두었으니, 나는 네가 교회에 가서 네 인생을 위해서와 이 땅에 있는 나의 교회를 위하여 매일 하루에 일곱 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을 그치고 나자, 방이 흔들리는 것도 그쳤습니다. 그리고나서 나는 문지방에 손을 뻗어 방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에게 뛰어 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와 교회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로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8시에 교회 문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그리고 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도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기도 할까요? 아직 4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뒷 문 쪽에서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술 취한 사람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주님은 제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이전에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들었던 목소리는 권위가 있는 음성이었으나, 이제는 슬픔으로 가득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리카르도,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교회는 이전과 같지 않다!! 이 땅에 있는 나의 교회는 변질되었다. 내 교회는 믿음을 잃어 버렸고, 나를 믿지 않으며, 내가 살아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내 교회에 가서 내가 살아 있다고 말하여라!! 내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여라,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도 금식도 하지 않는다!” 말씀을 마치자 흔들림도 그쳤습니다.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남은 네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한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잠에서 깨어날 때, 뼈와 관절에 심한 통증으로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일어나 교회에 기도하러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뼈와 몸이 심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며 집에서 대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상기시키자, 저의 옷을 입히셔서 교회로 데려 가 주셨습니다. 그 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픈 것이 낫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약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기름을 붓고 저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제게 형용할 수 없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안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며, 하나님께 칠레와 가족과 마약 중독자들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나는 중보 기도를 끝내고, 나중에 저녁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축도 후, 손을 들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나서 내 등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나자, 나는 온 몸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은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으며, 힘이 없어서 거의 말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나를 둘러싸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도 중의 한 사람이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나를 몸에서부터 데려 가도 되는지를 묻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몸에서 떠나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하자 천사는 나를 데려 가려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의 말이라도 존중합니다.

목사님은 제게, 천사가 얼마동안 데리고 있을지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나를 얼마동안 데리고 있을 것입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아니면 세 시간?” 천사는, “아니다, 너는 8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나서 그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천국에 데려 가는 천사가 아니다. 나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너를 지키는 너의 수호 천사이다. 두 천사가 오늘 밤 자정에 천국의 삼층천에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목사님께 말하였더니, 목사님은 나를 다른 형제의 차에 태워 목사관

이층에 데려 가려 하셨습니다. 내가 방에 눕자, 우리는 개가 짖는 소리와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때 희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길 한 복판에 나타나, 내가 있었던 곳의 입구로 걸어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부신 머리와 진주와 같이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아기와 같이 부드러웠지만, 몸집은 건장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힘이 넘쳤습니다. 나는 목사님께 여기 온 두 천사들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 가기 위해 보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의 한 천사가 나를 내 몸에서 데려 가려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의 뼈는 다시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형제는 내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내 몸이 얼음같이 차가와 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난로를 가지고 와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몸에서 나가게 하려할 때,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이리 저리 뒤척였습니다. 나는 죽음의 느낌이 내 몸을 덮는 느낌이 들어 교회의 형제들에게, “나를 묻지마, 다시 돌아 올거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몸에서 나가 침대 위에서 뛰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내 몸을 만지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카르도가 몸에서 나갔다!” 내가 그들 바로 옆에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도, 그들은 나의 죽지 않을 이 영적인 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저의 몸을 담요로 감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갈 시간이 되었다.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천사들은 각각 나의 팔 하나씩 잡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 올리고, 나는 대기권을 빛의 속도로 지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며, 또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내게 다신 내 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지상에서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여기에 주님과 그냥 살게 해 주세요! 아무도 이 일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도 부족한데, 누가 이 경험을 믿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을 것이다. 오직 나의 진실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네 말을 믿을 것이다.”

내가 몸을 떠난 후, 주님을 보러 가는 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았습니다. 아래에는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달 오른 쪽을 지나왔는데 지구의 밤을 영광스럽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태양도 내 눈으로 볼수 있었으며, 이글거리는 불꽃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수 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 달 별들을 자세하게 보여 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엄청난 창조주라는 것을 당신 모두에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분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서 별이 하나도 없는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창조물도 없고, 다만 어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니, 별은 전부 아래에만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두려움이 생겨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저를 다시 땅에 있는 내 몸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손은 더욱 꼭 잡고, 그들의 다리 한 쪽으로 내 다리 한 쪽씩 단단하게 감아

안았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 뱃 속에서의 자세를 취하듯, 몸을 구부려 웅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잠잠해라! 우리는 너를 예수님이 너와 이야기 하기 원하셔서 삼층천으로 데려 가고 있다!” 천사들은 잠시 멈추었는데, 그 사이에 나는 사방을 둘러 보니 창조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나, 거기가 두 번째 하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꼭 잡고 있는 동안 나는 어린 아이처럼 몸을 웅크려 있었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로 무시무시한 소란이 들려 왔습니다. 천사들은 나를 꼭 안아 붙들고, “리카르도, 무서워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의 머리를 들어 무엇이 있나 잘 보아라.” 나는 말한 대로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에서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잘 보아라, 우리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천사는 한 손을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그었는데, 조명을 비춘 것처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하늘 전체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조명하여 보니, 거기에는 온 하늘을 둘러싼 귀신들과 악한 영들 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성경은 진실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계시록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천사에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하늘에 있는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있는 어둠의 처소이다.” 나는 “이래서 땅에 악한 일이 그렇게 많았구나! 이 영역에 있던 귀신들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파괴와 사악함을 일으켰구나! 온 세상에는 귀신으로 가득차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수 천만으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공포



천사들이 내게 더 자세히 보라고 말하여 쳐다보니, 그들은 우리가 TV 에서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지상에서 파워레인저과, 만화로 된 선더 캣, 그리고 영화에서 본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화와 만화의 제작자들은 TV 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내가 하늘의 어두운 영들의 영적인 영역에서 직접 본 것들이었습니다. 왜 요즈음 아이들이 그토록 반항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장면들을 보는 동안 그들이 아이들 속으로 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를 분별하고 주의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사는 이모든 것은 실제이며 사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귀신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상에 귀신들을 보내고 있는 마귀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나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지구를 저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칠레에서 인기있는 만화의 주인공인 휴고라는 이름의 악한 귀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쳐다보기도 소름끼칠 만큼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모든

아이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은 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죽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아이들은 “TV 에서 보았던 괴물들이 나와서 내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시켜요” 라고 합니다. 이 귀신들은 세상에 미움을 심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칠레를 구해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천사가 내게, “계속 쳐다 보아라!” 그리고 나는 귀신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애써도 할 수 없다. 하나를 죽이면, 그 죽음을 대신하여 수 천이 일어난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사탄은 복음의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고안해 보자.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여 헛소문과 험담을 퍼뜨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간 끼리 나뉘게 하자. 교회를 험담으로 무너지게 해서 성령이 슬퍼하여 떠나게 하자.”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사방으로 두루 찾아다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베드로 전서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천사는 계속해서 잘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다가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귀신들은 혼비백산하여 온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이 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별은 별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흰 말을 타고 만군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부터 계신 주, 주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나는 엄청난 전쟁을 보았는데, 이후에는 귀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우리에게 있는 천사가 더 많다!”

천사들은 우리를 삼층천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우리의 오른편에, 다른 무리는 왼편에서 호위하여 삼층천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길은 하늘 가는 길이며, 여러분도 이 하늘의 도성을 볼 수 있습니다.(지구에서도 이 도성이 위성에 찍혀, 한 때는 라디오나 TV 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고도 찬란한 천사들의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역 전체를 말끔히 치웠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나를 그들 앞에 세우더니,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나는 어떤 자가 그 도성에서부터 흰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다가왔으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앞에 4 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왔을 때 보니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다른 어떤 천사들 보다 더 아름다와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먼저 말을 걸어 주기를 기다렸으나,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제서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나는 지상에서 너와, 교회를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이다” 나는 천사장 미가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으며, 그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들어가! 주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나는 도성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천사들은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도성을 쳐다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성은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문들은 모두 진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수정과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에 이런 것은 지구에서 본적도 없으며, 또한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건축자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도성 밖에 있었는데, 문들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안쪽을 보니 성벽들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로 되어있어서 찬란하게 빛이 났으며, 도성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천만의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밖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뒤흔드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목소리 뒤에서는 수천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은 거룩하시도다.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 속해 있도다, 아멘!” 또 큰 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거룩한 자만 이곳에 들어 올 수 있느니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내게 “들어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로 된 놀라운 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불은 보좌에서 흘러 넘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이 그의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손이 그 불에서 나와 나를 일으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나는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나는 그의 팔과 발을 만졌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은 세상에서 본 그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신을 만들고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남성미가 넘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결코 평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나는 석회나 나무로 만든 신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나의 교회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실제로 있으며, 진실로 살아 있는 하나님이다. 나의 백성에게 천국은 실제로 있으며, 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여라!”**

주님은 내게, **“이리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게 보여 줄 것이 있다.”** 우리는 아래를 보았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의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나도 하늘에서 당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내 교회를 보아라!”**고 하셨는데, 나는 형제가 형제를,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잃었고, 그들은 나를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악함은 땅에서 날로 증가되고,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믿기를 원치 않는다. 내 백성에게 내가 곧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 교회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있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저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니다. 내 교회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걸어간다! 내 교회는 쇠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여라!”**

나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한 문을 지났는데 땅이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황금 길을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그 가루를 내 몸에 날리며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게 다시 오라고 하시며, 여러분에게 천국에 있는 황금 길이 있음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 교회에는 나의 십일조와 헌금을 도적질하는 자가 많구나! 천국에 있는 나의 나라에는 도적이 들어 오지 못한다고 말하여라!”**

나는 천국에 갔다온 주 안에서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녀는 천사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하며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나는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주님, 그 자매는 여기에서 천사들이 혼인 잔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저는 왜 볼 수 없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를 위해 일 한 사람들이 머리에 쓸 왕관들이 보였다. 나는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시계를 보여 주십시오. 천국 시계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계 꿈을 꾸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자정 시간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나는 다시 주님께, “주님 언제 자정의 종을 치나요? 일 분 남았습니까, 아니면 오 분 남았나요?” 예수님은 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 보신 후, “**리카르도, 천국에는 시계가 없다!**” 나는 주님께 대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시간이 없다면, 왜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드시며 엄지와 금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오직 시간이 남은 것은, 믿음이 뒤로 물러 간 자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라.**” 만주가 되신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극히 짧은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란, 아버지의 은혜이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으며,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를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처음하던 일, 오래 전에 잊어 버렸던 처음 사랑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일을 거의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되풀이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 찼다!**”

그러자 우리 오른 편에 있던 천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시간이 끝났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 하고 계신다!” 주님은 오시며, 성경에 있는 모든 표적은 다 이루어졌다! 영화들은 대 재난이 일어날 것을 계속 보여 주었으며, 과학자들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인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끝났을 때, 수 백만의 천사들이 신부들이 드디어 천국으로 온다고 기뻐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내 말에 관심 갖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쁜 소식에 야단 법석을 떨며 즐거움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나도 천사들에게 함께 끼어들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팔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천국 밖으로 들어 올려서 무서운 속도로 아래로 내려 보냈습니다. 나는 지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지금, 그들은 신부들이 올라 온다고 기쁨에 차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믿고 싶지 않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금 곧 오시며,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휴거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 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에 대해 깨어 나십시오!! (리카르도는 울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셨던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카르도, 곧 휴거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지구 전체를 보았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셨던 귀하신, 너무나 아름다우신 성령께서 이 지구를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증기와 같은 것이 교회로 들어와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있어요? 아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구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 두지 않고, 모두 다 데려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로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다 어디 갔나! 나는 남아있다! 나는 남게 되었어!” 성가대 지휘자가 들어 온 후에 다른 목사들,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교회의 감독들 모두가

들어와 “나는 휴거받지 못했다” 하며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부모들과 배우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주님이 데려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었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신부를 데려 간다는 말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믿었기를 바라며 후회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잃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목사들이 울며, 또 사람들이 목사들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이런 일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남게 된 것은 모두 당신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진실로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때리고 갈기 갈기 찢으며, 머리를 잡아 당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들은 울며 자신을 해치지 말아 달라고 그들에게 빌었습니다. 사람들이 멈추려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회중 전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서 자신의 눈을 뽑으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닥과 벽에 자기 머리를 치며, 왜 예수님만 유일한 해답인지 이해할 수 없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악을 계속 행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였고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칼로 도려 내며, 머리가 깨어질 때 까지 벽에 찰며, 땅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피가 교회 안에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청소년 하나를 보았는데, “주님, 제발 저를 데려 가 주세요!”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의 교회를 다 데려 가셨습니다. 나는 그 외에도 너무 무서운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바닥에 쓰러 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대 환란 때에는, 이전에 결코 없었던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을 상하게 하였는데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은 “이 때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없다 그것은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또, “어째서 이 모든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땅으로 쓰러져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인 것은 네가 나의 교회에 가서 경고를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나는 시간이 아직 있는 동안에 용서할 것이다. 그들의 죄는 모두 씻어 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불이 움직여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보이느냐? 이 불은 지구에 있는 불이며, 그 불은 칠레를 덮을 것이다. 칠레는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칠레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불이 움직여 칠레로 들어 오려고 하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눈이 칠레를 향하고 계신다. 불이 칠레에 임할 때,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칠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주님은 나를 “파세오 휴마다” 라는 곳으로 환상 가운데 데려 가셔서 병어리와 다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서 다리를 향하여 자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는 복종하고 그들의 눈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팔이 없는 사람들의 팔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동안, 주님은 내게 창조적 기적 (creative miracles)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이 행하였던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리카르도 시드) 보여 주신 것의 전부입니다. 그는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번역: 이 명주